

# 조선 후기 도서 지역의 봉수 연구

- 강화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ongsu (Beacon Fire St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Ganghwado and Jeju Islands -

오 신 일

Oh, Shin-Il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석사과정)

이 왕 훈

Rhee, Wanghoo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석사)

김 영 재\*

Kim, Young-Ja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부교수)

### Abstract

Bongsu(Beacon Fire Station) is a facility that sends signals with fire and smoke and has been used in Korea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facility was installed to know the north and south crises. This trend continues until the Joseon Dynasty, and it has been somewhat completed in the 17th century. In previous studies, beacon fire was identified mainly from the border area to Hanyang. Based on this, it was classified into Gyeongbongsu, Yeonbyeonbongsu, and Naejibongsu.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beacon fire in coastal areas only with this classification. In the case of beacon fire in island areas, there was a tendency to value communication connection within the region rather than connection with the capital. As a case analysis for this, an academic review was conducted with the cases of Ganghwa Island and Jeju Islan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beacon vary depending on the defense system and the physical distance from the land, even if it has the topographical commonality of the same island.

주제어 : 봉수, 연대, 관방시설, 도서 지역, 강화도, 제주도

Keywords : Bongsu(Beacon Fire Station), Yeondae(Coastal Beacon Fire Station), Fortification, Island area, Ganghwa Island, Jeju Island

### 1. 서론

한반도의 왕조 국가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전쟁을 겪어왔다. 삼국시대 이후 하나의 국가가 한반도의 주류국으로 형성된 이래 국가 방위는 같은 한반도 내의 세력이 아닌 한반도 밖의 외적 방비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크게 2가지 세력에 대한 대비가 주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북쪽의 초원 유목민계열의 외적이며 다른 하나는 남쪽의 해양계 외적이다. 특히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방비법을 항시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식견은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들은 국가적인 골칫거리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을 겪으면서 관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17세기인 효종~숙종 때 두드러져 나타났다.

\* Corresponding Author : kyjandy@nuch.ac.kr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1R1I1A4A01056401).

이런 방어시설의 축조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봉수 시설이다.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는 성곽을 개보수하면서 봉수(烽燧) 시설을 같이 운영하였다. 또한, 성곽 내에 존재하는 봉수대 외에도 따로 소규모의 독립된 시설로서 봉수의 설치를 권장하였는데, 이런 시설물에는 봉돈(烽墩) 혹은 돈대(墩臺)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독립된 봉수 시설물들은 주로 접경지대 인근 혹은 외부의 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접경지대에 설치되었다. 이런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봉수대는 관측 등을 통해 적의 출현을 확인하여 신호를 보내고, 사전에 구성된 중앙봉수 체계에 따라 수도까지 그 신호가 연결되는 하나의 통신 시설군으로서 작동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독립된 봉수 시설물 중에서 중앙봉수 체계에 꼭 속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런 사례들은 특히 한반도의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 그 유구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봉수 시설은 불과 연기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통신 시설물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곳에서는 초소의 역할도 병행하였다. 이런 배경에 입각하였을 때 도서지역의 봉수 시설들은 입지 경향성과 설치 위치에 상호 연계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과 연계성의 배경이 되는 체계와 운영,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서 봉수 시설물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각 객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상호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접근을 위하여 총괄적인 ‘관망체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즉 해안 봉수 시설의 체계 이해를 위해서 조선 초기와 후기 방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조선시대의 방어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봉수 시설이 받은 영향을 확인을 고려하였다. 특히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중앙봉수체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양과의 거리가 있으면서 규모와 중요성이 충족되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섬을 확인하여 사례로 비교분석 하였다. 이에 대한 적합한 대조군으로서 제주도와 강화도가 고려되었다.

이러한 논지 방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봉수 체계와 봉수 시설의 성격을 종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대표사례로 제주도와 강화도를 들어 상세한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 2. 봉수 체계의 개요

### 2-1. 봉수의 정의와 종류

봉수는 횃불이나 연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던 통신수단이자 제도를 의미한다. 봉수는 근대적인 통신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용된 중요한 연락수단이었다. 봉수(烽燧)라는 용어는 봉화 혹은 횃불을 의미하는 봉(烽)과 연기를 의미하는 수(燧)가 결합한 것으로,<sup>1)</sup> ‘봉’이 의미하는 봉화의 경우 행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이라는 의미를 통해 야간에 이루어지는 봉수 시설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수’는 부싷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연기로 해석하면 주간에 이루어지는 연기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주연야화(晝煙夜火)’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주간에는 연기, 야간에는 횃불을 이용한 연락수단을 봉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조선의 『경국대전주해』에서 봉수의 해석을 ‘봉’을 망보는 표시로써 적이 오면 불을 들어 서로 알리는 것이라 하고, ‘수(燧)’를 나무를 태워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여 낮에는 연기를 내고, 밤에는 횃불을 든다는 것으로 기록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이보다 더 넓은 범위로 봉수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봉수라는 수단을 위한 제도, 시설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주연야화를 기본으로 하여 제도가 발전했고, 이에 대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장소 역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봉수의 의미가 군사적 성격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따라 지속해서 운영해야 할 장소가 필요했고, 이 장소가 발전하여 시설로서의 규모가 마련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봉수는 현재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경봉수라고 지칭되는 중앙봉수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전국 봉수의 종착지였던 목멱산봉수를 의미한다. 연변봉수는 한반도 국경 지역 일대에 설치되었던 일선봉수로 연대라고도 호칭되지만, 연대라는 거화와 방어를 위한 봉수의 구조물이 없는 연변봉수가 있음을 고려하면 연변봉수와 연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명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내지봉수는 목멱산봉수

1) 정의도(한국성곽학회) 외, 『봉수유적 문화재(사적 등)지정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II』, 문화재청, 2021, 330쪽

2) 『경국대전주해』, 후집, 사전 천관 총재, 육조조, 봉수.

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봉수로 문헌 기록에는 ‘복리 봉화’로 처음 언급되었다. 신호 전달을 주목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연변봉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가 확인된다.<sup>3)</sup> 이외에 권설봉수는 연변봉수만으로 관측과 방어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여 연변봉수와 기능이 유사한 봉수지만, 소속된 본읍과 영진에만 연결되었던 봉수이다. 요망대 역시 권설봉수와 유사하게 임시로 설치되어 소속 거점으로만 연결되었지만, 다른 봉수에 비해 기록이 적고, 모든 요망대에서 봉수의 기본적인 기능인 통신을 위한 거화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시설이다.

## 2-2. 조선 시대 봉수 체계의 변천

우리나라의 봉수는 문헌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봉수, 혹은 봉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에서 왕이 신하를 시켜 망산도에 나가 붉은 돛과 붉은 기를 단 배를 맞이하게 할 때 거화하는 내용이 확인된다.<sup>4)</sup> 『삼국사기』에는 ‘봉현(烽峴)’<sup>5)</sup>, ‘봉상(烽上)’<sup>6)</sup> 등 봉수와 관련된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고양현 조에는 해당 지역과 관련해 산머리에 봉화를 피워 고구려 안장왕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최소한 봉화는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이후 한반도 국가에서 제도적 성격을 가진 봉수가 성립된 것은 고려 시기로 판단된다. 1029년 봉수를 신중히 하라는 기록<sup>7)</sup>을 시작으로 1123년에는 송 사신을 산 정상 봉수로 왕성까지 인도했다는 내용<sup>8)</sup>이 있다. 1149년에는 상황에 따른 봉화(烽燧)의 방식을 정하여 평시에는 불(야간)이나 연기(주간)를 하나 올리고, 긴급상황에 따라 2~4거(擧)를 하계꿈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에게 평전(平田)을 주었다<sup>9)</sup>. 이는 군제 성격을 갖춘 봉수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 이전 시기인 1029년 흥요국(興遼國)과 거란과의 마찰에서 흥요군의 구원 요청에 대한 논의 중 봉수를 신중히 하자는 부분<sup>10)</sup>과 1123년 매년 중국 왕조에 사

신이 탄 배가 흑산도에 이르면 야간에는 산정에서 봉화를 밝혀 여러 산이 호응하고 왕성까지 간다고 하는 부분<sup>11)</sup>에서 봉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만, 제도적 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기능을 완전히 갖춘 봉수로서 운영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1351년에는 송악산에 봉화소를 설치<sup>12)</sup>함으로써 개경 인근에 시설을 의미하는 봉수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면 봉수제는 제도적으로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세종 때 봉수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정비되기에 이른다. 우선, 적이 해안과 육지 두 곳 중 어디 있는지에 따라 거화의 수를 다르게 하도록 했다.<sup>13)</sup> 1거화는 육지와 해안 모두 평시에 올렸지만, 2거화부터는 차이를 보인다. 내륙 2거화는 경계 밖에 접근 시, 3거화는 경계에 근접할 시, 4거화는 경계를 침범할 시, 5거는 적과 전투 시를 기준으로 했다. 해안에서는 해상의 적 출현 시 2거화, 근경에 접근 시 3거화, 해상 전투 시 4거화, 적 상륙 시 5거화를 올리도록 했다. 또한, 해안에 위치한 봉수에 연대를 설치하여 병기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sup>14)</sup> 1422년에는 봉수가 운영되는 곳에 방어시설이 없어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니 연대 시설을 축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음 봉수에서 연대 시설이 확인된다.<sup>15)</sup> 다음 해에는 서울 남산에 봉수를 설치해 지방의 봉수에서 전달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sup>16)</sup> 보편적인 봉수제도의 틀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봉수와 관련된 규정은 이후에 더 마련되어 연변의 연대 축조 방식과 중심부 지역에 봉화를 배치하는 제도를 규정했다. 이때 연변에 설치하는 연대의 축조 방식을 영조척을 기준으로 높이 25척, 둘레 70척으로 하고 연대 아래 사면(四面) 30척 바깥에 깊이와 넓이를 각 10척으로 하는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의 외면에 나무 말뚝을 설치하도록 규정<sup>17)</sup>하면서 봉수 내의 시설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세종 재위 동안 기틀을 다진 조선의 봉수제는 성종

3) 홍성우, 「조선시대 봉수대와 봉수군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4쪽

4) 『삼국유사』, 기이 제2, 가락국기

5) 『삼국사기』, 제23권, 백제본기 제1, 온조왕 10년 동10월

6) 『삼국사기』, 제17권, 고구려본기 제5, 봉상왕

7) 『고려사』, 권94, 열전 최사위전

8) 『선화봉사 고려도경』, 권35, 해도2 흑산

9) 『고려사』, 권81, 병1, 병제, 오군(1149년 8월)

10) 『고려사』, 94권, 열전 제7권, 제신, 최사위

11) 『선화봉사 고려도경』, 35권, 해도2, 흑산

12) 『고려사』, 81권, 지, 제35권 병1, 병제, 오군, 충정왕 3년 8월

13)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26일

14)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9일

15)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9일

16)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26일

17)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4일

때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규정이 정리되어 법제화되었다. 이후 조선의 봉수제는 임진왜란 당시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한때 파발을 통해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sup>18)</sup> 그러나 봉수제를 완벽히 대체할 만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 통신수단이 등장하기 전까지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기본적인 봉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총 5개의 노선으로 운영되었다. 이 중 제 1, 3, 4로의 봉수망이 북방 국경에서 시작되어 한양으로 이어졌으며, 제2, 5로의 봉수망은 한반도 남해안에서 시작되어 한양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봉수의 연결망은 『증보문헌비고』와 『만기요람』과 같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주 노선인 직봉과 간봉을 구분하여 1~5노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만기요람』 역시 봉수 노선을 1~5노선으로 기록하였다. 시기에 따라 봉수 노선에 변화가 있었지만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조선 후기 조선의 봉수망은 함경도에서 강원도와 경기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 봉수를 통해 한양에 오는 제1거 노선, 경상도와 충청도, 경기에서 오는 제2거 노선, 평안도, 황해도 경기에 육로를 통해 오는 제3거 노선, 제3거 노선과 같은 지역에 수로로 오는 제4거 노선,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에서 오는 제5거 노선으로 운영되었다.<sup>19)</sup>

2-3. 도서 지역 봉수의 성격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도서 지역 봉수의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봉수 체계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도서 지역에 설치되었던 봉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연변봉수로 분류된 봉수가 많다. 다만, <표 1>에 정리했듯이 강화도를 제외한 남해안 일대에 도서 지역에서는 연변봉수 이외에도 다수의 권설봉수와 요망대가 확인되고 있다.<sup>20)</sup> 이는 조선시대 도서 지역이 내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어려웠으므로 중앙 봉수로 연결되지 않고 소속 본읍과 진영에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해안 도서 지역에 권설봉수와 요망대가 많은 이유는 조선 후기에 도서 지역에 인식 변화와

18)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19) 『증보문헌비고』, 124권, 병고16, 봉수2

20) 면적이 넓은 섬 위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제도, 진도, 완도 등에서 다수의 권설봉수 및 요망대가 확인된다. 거제도에서 확인된 10개소 시설 중 8개소, 진도에서 확인된 7개소 시설 중 5개소가 권설봉수이며, 완도에서 확인된 11개소 시설 중 10개소가 요망대로 분류되었다.(이철영 외,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문화재청, 2015; 『전국 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 문화재청, 2016)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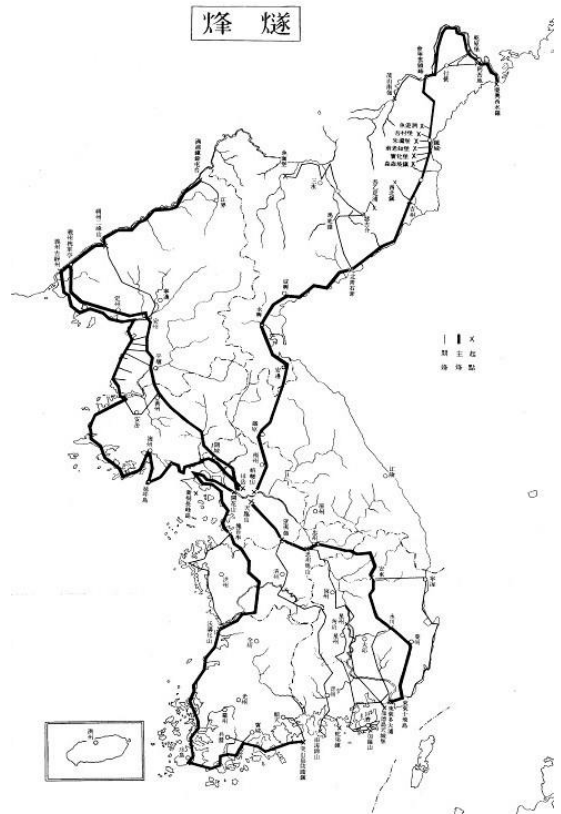


그림 1. 문헌비고 봉수망

(출처: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1968, 531쪽)

표 1. 주요 도서 지역 봉수 시설

완도		거제도		진도	
완도 봉수	연변	가라산 봉수	연변	여귀산 봉수	연변
신지도 돈대	권설	계룡산 봉수	연변	첩찰산 봉수	연변
동망산 요망	요망대	가을곶 봉수	권설	굴라포 봉수	권설
남망산 요망	요망대	놀일곶 봉수	권설	상당곶 봉수	권설
서망산 요망	요망대	옥산 봉수	권설	사구미 봉수	권설
조약도 요망대	요망대	울포진 별망	권설	상조도 돈대	권설
청산진 요망대1	요망대	소비포 보별망	권설	하조도 돈대	권설
청산진 요망대2	요망대	강망산 봉수	권설		
생일도 요망대	요망대	능포 봉수	권설		
평일도 요망대1	요망대	와현 봉수	권설		
평일도 요망대2	요망대				

본래 조선 전기에는 육지에서 먼 도서 지역에 주민 거주를 금지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했다.<sup>21)</sup> 대신 도서 지역에서는 바다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국영목장을 설치하고 운영했다.<sup>22)</sup> 그러나 조선 후기 도서 지역은 입도 정책으로 변화된 운영 형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 변화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는 황당선이 출현이 증가했던 시기로 해안 방어의 비중이 전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남해안 일대에 수군진을 증설하여 이를 담당하는 관리가 파견되었다.<sup>23)</sup> 증설된 수군진은 이전에 연해 내륙지역에 설치되던 경향과 달리 외해의 섬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sup>24)</sup> 증설한 수군진의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기존에 공도로 두었던 외해의 섬으로 이주 정책을 시행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섬 내에서 자체적으로 병력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전투 병력의 운영을 위한 사전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봉수와 같은 관측시설이 신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설된 봉수의 목적이 증설된 수군진으로의 연락이었으며, 연해에 위치한 수군진에서 봉수를 관리하고 운영했던 것<sup>25)</sup>을 고려하면 기존의 중앙 봉수 노선에 포함될 필요성도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이 도서 지역에 새로운 봉수 설치라는 결과로 연결되었으며, 이후 도서 지역에서 중앙 봉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성격의 봉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도서 지역 봉수의 성격은 일반적인 봉수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강화도와 제주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넓은 주요 도서일 뿐만 아니라 한 섬은 한양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한 섬은 한양과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먼 지역이다. 이를 고려하면 두 지역은 도서 지역 중에서도 그 특성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도서 지역 간 봉수 시설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요

도서 지역인 강화도와 제주도의 방어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3. 조선 후기 강화와 제주 봉수의 성격

#### 3-1. 조선 후기 강화도의 봉수

조선 후기 강화도 지역은 보장처(保障處)이자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컸다. 이로 인해 수도방어와 직결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수도방어체계를 정비할 때는 강화도의 방어체계가 함께 정비되었다.<sup>26)</sup> 이와 함께 지역 방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관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후기 강화지역은 54개소의 돈대라는 관측을 겸한 거점 시설을 구축하여 도서 지역 방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sup>27)</sup> 다수의 돈대는 주변 관측에 유리하도록 주로 해안 곶에 입지해 있고, 해안만이 아니라 돈대 간 상호 관측도 가능한 거리<sup>28)</sup>에 배치되었으며, 상륙 지점에 대한 방어를 위해 나무터나 포구 인근에 설치되었다.<sup>29)</sup>

해안의 돈대와 함께 해안 관측을 수행한 시설은 강화도 산악에 위치한 봉수가 있다. 조선 후기 강화도에서 운영된 봉수는 15개소였다. 이 중 6개소 봉수가 봉수 노선 제5로 상에 속한 주요 봉수로 설치·운영되었다. 전라도 돌산도에서 시작된 봉화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거쳐 강화도로 연결되었고 경기도 통진 일대를 경유하여 한양 목멱산에 도착했다. 또한, 그 이외에 교동도에 위치한 수정산봉수의 경우 북방 연변에서 시작되는 제4로 봉수에 속한 봉수로 강화의 다른 봉수와는 그 연결 노선이 달랐다. 나머지 8개소 봉수는 강화도의 본영 즉, 통어영으로만 연결되는 노선을 가진 권설봉수와 요망대였다. 특히, 대부분 강화도 본섬보다

21) 고동환, 「조선 후기 공도정책과 원산도의 변화」, 호서사학 45, 호서사학회, 2006, 29쪽

22) 임학성, 「조선 전·후기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양상-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152-153쪽

23) 임학성, 앞의 논문, 2022, 159-160쪽

24) 김경옥, 「조선 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3쪽

25) 한셋별, 「전라좌수영의 봉수 - 고흥·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좌수영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35-336쪽

26) 17세기 초반에는 강화도 중심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강화도를 유수부로 승격시켰으며, 17세기 후반에는 강화도 해안 방어를 위해 돈대를 설치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도성 외곽 방어의 중심지로서 변모하였다.(노영구,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계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8, 58-165쪽)

27) 돈대의 ‘돈(墩)’에 경우 본래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등장하는 돈후라는 척후 시설의 ‘돈’은 같은 의미이다. 이로 보아 돈대는 방어뿐만 아니라 관측 임무 역시 주기능으로써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이왕훈, 「조선 후기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15쪽)

28) 돈대 간의 평균 거리는 약 1250보(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조선시대사학회, 2003, 154-155쪽)이며, 이는 약 1.55km의 거리이다.

29)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강화도, 광주 신남성, 파주 장산진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92-99쪽

는 주변 부속 도서에 다수 요망대가 신설되어 있었으며, 강화도의 주요 봉수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화의 주요 봉수 시설

\*주요 봉수는 『강도지』, 『여지도서』, 『강화부지』, 『속수증보강도지』 등 조선 후기 문헌 및 자료에 나타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변봉수		권설봉수 및 요망대	
대보성산봉수	연변	진망산봉수	권설
진강산봉수	연변	길상산요망	요망대
망산봉수	연변	동검도요망	요망대
규산봉수	연변	말도요망	요망대
하읍산봉수	연변	불음도요망	요망대
남산봉수	연변	어류정요망	요망대
수정산봉수	연변	황산도요망	요망대
		주문도요망	요망대

권설봉수의 설치는 조선 후기 다른 도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다른 도서 지역과 비교하여 조선 후기 강화도는 돈대가 함께 운영되었기 때문에 해안에 인접한 돈대와 고지대 봉수의 동시 운영을 통한 관측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관측체계는 조선 후기 주요 도서 지역이었던 강화도의 방어체계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서 지역 중 유일하게 수도방위체계에 포함된 강화도와 주변 부속 도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판단된다.



그림 2. 강화도 망산봉수(2022. 04. 23 필자 촬영)

### 3-2. 조선 후기 제주도의 봉수

조선 후기 제주도의 봉수는 이전 시기 봉수 체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25개소 봉수로 완성되었다. 완결된 봉수의 운영노선은 『탐라지』, 『증보탐라지』, 『제주병제봉대총록』 등에서 나타나며 그 목록은 <표 3>과 같다.

제주 25봉수는 모두 제주의 고지대인 오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봉수의 시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망을 위해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한 일반적인 봉수의 입지 조건과 같다. 시계는 해안 관측 시

야뿐만 아니라 시설 간의 관측도 고려하여 입지했고 제주 봉수의 응소 시설 간 평균 거리는 3.3~3.7km였다.<sup>30)</sup>

표 3. 제주의 봉수

봉수명	『탐라지』 (17세기 중반)	『증보탐라지』 (18세기 중반)	『제주병제 봉대총록』 (18세기 후반)
사라봉수		沙羅	
원당봉수		元堂	
서산봉수		西山	
입산봉수		笠山	
왕가봉수		往可	
도원봉수		道圓	
수산봉수		水山	
고내봉수		高內	
도내봉수		道內	
만조봉수	板浦/ 晩里(이설)		晩早
남산봉수		南山	
달산봉수		達山	
독자봉수		獨子	
수산봉수		小首山	水山
성산봉수		城山	
지미봉수	指尾	地尾	指尾
토산봉수		兔山	
자배봉수	錢縣里/ 紫浦(이설)	紫蒲	資盃
호촌봉수		狐村	
삼매양봉수		三每陽	
호산봉수	蠓山(이설)	伊頭於時	蠓山
구산봉수	龜岳	窟山	龜山
저별봉수	松岳		貯別
모슬봉수	毛瑟	募瑟	毛瑟
당산봉수		堂山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제주의 봉수 체계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봉수 운영과는 그 맥락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조선 후기 한반도 전체의 봉수 체계와 관련된 여러 사료에 제주 봉수 체계가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봉수 체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국경의 상황을 임금이 거주하는 도성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그 실태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별도로 봉수 지도를 작성하고 각 지역의 봉수 노선에 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봉수와 관련된 자료 중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에는 조선 후기 전국 봉수대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지도상에는 제주읍성 및 정의·대정현성의 치소와 한라산만 표현되어 있을 뿐 봉수로 판단되는 시설은 표현하지 않았다. 이는 1914년에 제작된 조선봉수연락약도에서도 같은

30) 오신일, 「조선 후기 제주 연대(烟臺)의 속성 정립을 위한 입지 특성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95-98쪽



표시 양상을 보이며, 해당 지도에는 3곳의 치소 간 연결만이 표시되었다. 이 연결은 각 치소 간의 가장 가까운 연락 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 중산간 지역 육로를 통한 3치소의 연결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며, 봉수 연락망을 표시한 지도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실제 해안 일대에 배치되었던 제주 봉수 연결망은 고려되지 않은 표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헌 표기에서도 같다. 조선 후기 일부 문헌에서는 제주 봉수 체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의 국경 지역에서 한양으로 연결되는 제1~5로 봉수 노선을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제주의 봉수망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도성으로 도착하는 조선의 기본적인 봉수 체계 형태에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의 봉수 노선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는 봉수를 운영하기 위한 거화법도 기본적인 거화법과는 차이가 있다. 섬 지역의 일반적인 외적의 침입 경로는 해안으로 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해안 거화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주는 조선 후기 수군 폐지로 인해 해상에서 대처하지 않고 상륙한 적에 대응하는 육상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해안과 육지의 거화법을 혼용하여 1·2·3·5거는 해안 기준 거화법을 적용하고, 4거는 해안 기준 거화법을 적용한 독특한 통신체계로 운영되었다.<sup>31)</sup>

이와 같은 봉수 운영체계의 차이는 제주 연대라는 시설을 활용한 이중적인 해안 관측체계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는 봉수라고 불리는 시설과는 별도로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연대라는 시설을 축조했다. 이를 통해 고지대에 설치된 봉수가 원해(遠海)를 관측하고 해안 언덕에 입지한 연대가 근해(近海)를 관측하여 긴 해안선을 가진 제주 지역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방어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주 연대 체계의 시설로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38개소<sup>32)</sup>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제주 연대는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그림 3>과 같이 3개소뿐인 상태지만, 이외에 구조물들은 다수가 정비 및 복원되어있는 상태이다.

표 4. 제주의 연대

제주의 38연대			
수군연대	에월연대	소마로연대	마희천연대
조부연대	귀덕연대	별포연대	대포연대
별도연대	우지연대	협자연대	별로천연대
조천연대	죽도연대	오소포연대	당포연대
왜포연대	마두연대	종달연대	산방연대
함덕연대	배령연대	금로포연대	서림연대
무주연대	대포연대	우미연대	우두연대
좌가연대	두모연대	보목연대	무수연대
입두연대	말등포연대	연동연대	변수연대
남두연대	천미연대		



그림 3. 구조물의 기본 형태가 남아있는 제주 말등포, 협자, 소마로연대(2022. 07. 16 필자 촬영)

사료의 여러 기록과 운영체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제주의 봉수와 연대를 이용한 관측체계는 조선의 일반적인 봉수 체계와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주의 봉수와 연대에 대한 성격을 구분할 때는 보편적인 조선의 봉수 체계를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특히, 제주 해안에 설치된 관측시설이 연대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흔히 연대라고도 불리는 연변봉수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변봉수의 성격이 한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선의 봉수 연결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 봉수와 연대의 성격을 연변봉수로 정의하는 것은 제주 봉수와 연대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지역의 봉수와 연대의 성격만을 고려하면 한양으로 명확히 연결되는 형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읍과 영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했던 권설봉수의 성격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권설봉수는 임시로 설치되어 단기간 운영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한정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영된 제주 봉수는 권설봉수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권설봉수의 정의가 『대동지지』에 표기된 일부 봉수의 ‘권설(權設)’ 표기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sup>33)</sup>하면 『대동지지』에 권설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제주 봉수와 연대를 권설봉수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적절

31) 오신일, 앞의 논문, 2023, 67-68쪽

32) 무제(無題)의 제주도 지도에서 39개소의 연대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1680년 순무어사로 제주에 다녀간 이중에 『남사일록』에는 제주 연대 38개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연훈포(현재 온평리 소재) 서쪽 연대가 언급된다. 그러나 이후 이 연대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3) 홍성우 역시 권설봉수의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권설봉수에 명사화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홍성우, 앞의 논문, 2021, 18-19쪽)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제주 봉수 시설은 중계 전달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측이 이루어졌던 시설이므로 내지봉수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제주 봉수 시설에서는 약정된 신호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망대로 정의하는 것도 적절한 구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제주의 봉수와 연대는 일반적인 조선의 봉수와는 그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여 기존 체계와 구분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3. 강화도와 제주도 봉수 체계의 비교·분석

강화도와 제주도는 한반도 국가에 소속된 주요 대도(大島)이다. 그러나 강화도가 도읍과 가장 가까운 섬인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읍에서 가장 멀리 있으므로 두 섬의 지형학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관방 시설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측시설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차이는 운영 형태적인 부분이다. 특히 수군의 운영과 관련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강화도의 경우 1624년 경기수영이 강화로 이전되고,<sup>34)</sup> 충청과 경기, 황해지역 수군을 총괄하는 통어영이 강화 본섬과 교동 일대에 소재했었던 것<sup>35)</sup>처럼 수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 증설된 강화도 및 부속 도서에 권설봉수와 요망대가 강화도의 방위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조선 후기 일반적인 도서 지역에 수군진 증설에 따라 본영·진으로 단독 연결되는 봉수가 신설되는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강화도에서는 요망대와 별망, 해망, 돈대 등의 관측시설은 수군진 및 통어영과 수군 병력 운영을 위한 정보 획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조선 후기 제주에는 수군이 운영되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제주에도 수군과 이를 운영하는 여러 수전소(水戰所)가 있었으나, 1675년 수군과 전선을 모두 폐지했다.<sup>36)</sup> 이에 따라 조선 후기 제주에는 육군 단독 운영을 통한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해안에 제주 연대라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며, 육군 병력이 주둔하는 거점으로 신속한 상황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관측시설을 운영했다. 수군이 없는 제주에는 관측

시설이 수군진과 연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제주 연대와 같은 해안에 인접한 시설의 경우 정박 가능한 지역을 관측하기 위해 주변 포구와 연관되어 입지했으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마을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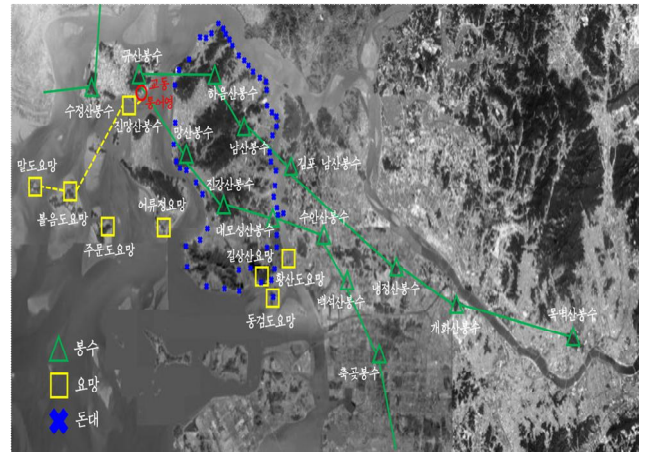


그림 4. 조선 후기 강화도의 일대 봉수망

두 번째로 연결되는 노선에 따른 운영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장처로서 중요한 거점이었던 강화도는 수도방위체계를 위해 한양으로의 통신 절차가 중요했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강화도 본섬에 주요 봉수의 경로가 강화도에서 내륙으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는 한양에 도착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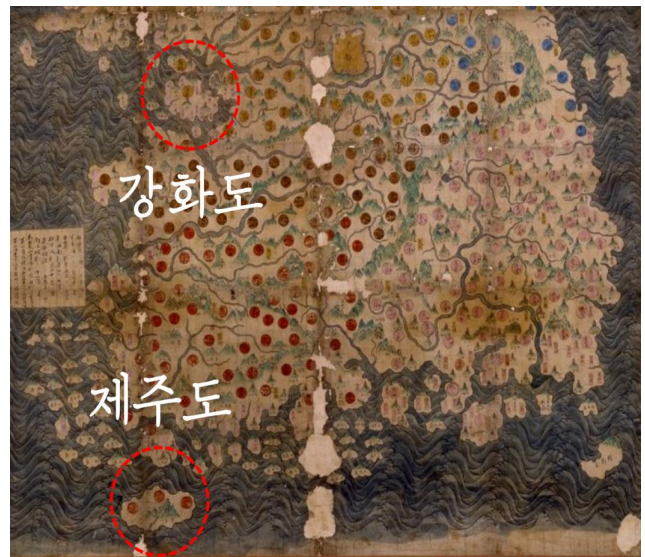


그림 5.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의 제주도와 강화도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4)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16일

35) 『정조실록』 권7, 정조 3년 3월 8일;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5월 26일

36) 윤시동, 『증보탐라지』, 권2, 제주, 수전소; 『증보탐라지』, 권3, 제주, 군병, 수군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강화도 부속 도서의 요망대의 경우도 관측과 통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방어적 기능에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요망대는 방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sup>38)</sup> 그리고 명확한 연결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요망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망대는 관측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의 경우 봉수와 연대를 통해 관측과 통신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시설 방어 기능까지 수행했다. 이는 봉수와 연대 시설에 군기를 지급하고,<sup>39)</sup> 시설에 소속된 군병에게 백병진을 준비하도록 한 『봉수군강절목』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수와 연대 간 관측 범위를 각각 원해와 근해로 설정한 상호보완적인 시설 간 관계를 고려하면 강화도의 통신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주요 봉수와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강화도의 돈대와 봉수를 통한 방어체계와 제주도의 연대와 봉수를 통한 방어체계는 두 도서 지역에서의 해방(海防) 성격이 반영된 이중 방어체계라는 점이 공통된 부분으로 판단된다. 강화도는 시설 간 입지 차이를 두어 고지대의 봉수와 요망대를 이용한 관측과 통신, 해안의 돈대를 이용한 관측과 방어를 통한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수호하기 위한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시설의 동등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각 시설 간의 주요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역시 고지대의 봉수와 해안 연대의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보완적 이중 관측체계로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밀한 관측과 신속한 보고를 통해 읍·현성 및 진성과 같은 군사 거점에서의 병력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강화도와 제주도는 방어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 도서 지역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공통점도 확인되지만, 한양과의 거리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두 지역의 방어체계 특수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조선 후기 7개소의 요망대 중 불음도요망만 방호벽과 같은 방호 시설이 확인되었다.(김주홍, 「강화·김포의 봉수·요망대와 관방체계」, 제9회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2016, 89-93쪽)

39) 고창석·김상욱 역, 『제주기록』, 제주발전연구원, 2012, 89쪽

40) 『서계집록』에 수록된 『제주순무어사막천형서계』에는 제주 봉수는 먼 거리에서 적선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관측하며, 연대는 적선이 정박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관측한다고 구분했다.

#### 4. 결론

지금까지 강화도와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도서 지역의 봉수 시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술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화도의 해안 시설물들은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서로 세분화되었다. 강화도의 관측체계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봉수대와 해안가에 위치한 돈대로 구분된다. 돈대에서는 근거리 관측과 더불어 강화도에 대한 일차적인 상륙저지와 방어적 기능이 병행되었다. 이를 위한 입지 특성이 반영되어 돈대는 주로 나루터나 포구에 설치되었다. 반면 봉수의 경우 고산지대에 위치하였는데, 이러한 입지 선정은 봉수가 갖는 방어기능의 역할이 축소된 대신 관측 범위를 늘려 통신수단으로서의 기능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기능적 심화와 세분화는 강화도라는 지역 내에서 봉수와 돈대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고찰된다.

둘째, 제주도의 봉수는 기존의 봉수체계와는 다른 독립적 성격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봉수는 크게 경봉수, 연변봉수, 내지봉수, 권설봉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기존의 분류법은 각각의 봉수가 점경지에서 도성까지 연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분류된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의 봉수와 연대의 경우는 한양과의 연계성보다는 제주도라는 지역 내에서 독립적인 통신체계로서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의 봉수와 연대는 권설봉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성격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두 지역은 각 시설의 동등한 보완적 기능을 통해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한양과의 공간적 종속성으로 인해 봉수 시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도와 강화도가 같은 섬이라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봉수 시설들의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것이 그 사례다. 3장에서 서술했던 각각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의 방어체계와 연계되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수군과의 연계성, 수도 한양과의 거리 차이와 통신 연결 유무, 대체 가능한 보조 시설물(강화도의 경우 돈대)의 유무에 따라서 각 봉수 시설이 갖는 성격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한양과 강화도, 한양과 제주도의 관계가 각각 갖는 공간적 종속 정도가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 지역 봉수가 갖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고찰하였고 그 사례로서 강화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서 지역의 봉수가 내륙지역에 설치된 봉수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한반도의 도서 지역 봉수를 전부 파악하여 상세히 분석한 것이 아닌 까닭에 이에 대한 표본 한계가 존재한다. 또 ‘도서 지역’이라고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섬마다 처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여 운영되었던 인문학적 환경들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묶어서 ‘도서 지역’이라는 일반론으로 규정하여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삼국유사』
2. 『삼국사기』
3. 『고려사』
4. 『선화봉사 고려도경』
5. 『조선왕조실록』
6. 『증보문헌비고』
7. 『경국대전주해』
8. 『제주순무어사박천형서계』
9. 윤시동, 『증보탐라지』
10. 박현용, 『속수증보강도지』
11. 김경옥,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 홍성우, 「조선후기 봉수대와 봉수군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3. 이왕훈, 「조선후기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4. 오신일, 「조선후기 제주 연대(烟臺)의 속성 정립을 위한 입지 특성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5. 고창석·김상옥 역,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2012
16. 이철영 외,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문화재청, 2015
17. 이철영 외, 『전국 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 문화재청, 2016
18. 노영구,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8,
19. 정의도(한국성곽학회) 외, 『봉수유적 문화재(사적 등) 지정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II』, 문화재청, 2021
20. 고동환, 「조선후기 공도정책과 원산도의 변화」, 호서사학 45, 호서사학회, 2006

21. 한샛별, 「전라좌수영의 봉수-고흥·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 전라좌수영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22. 정민섭, 「17~18세기 경기도 일대 돈대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강화도, 광주 신남성, 파주 장산진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23. 임학성, 「조선 전·후기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양상-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24. 김주홍, 「강화·김포의 봉수·요망대와 관방체계」, 제9회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2016
25. 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조선시대사학회, 2003

접수(2022.12.02)

수정(2023.01.29)

게재확정(2023.02.07)